

하나됨과 나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 고린도전서 1장 3절 >

- 오늘은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이며 주님의 수세 주일입니다.
- 오늘 4/4분기 실행위원회 정기회의가 있습니다.
- 어린이학교 졸업여행이 13일부터 23일까지 싱가포르와 베트남에서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꾸러기학교 동문회가 18일(토)에 사랑방공동체에서 있습니다.
- 조민아 선생님이 멧쟁이학교에 오셨습니다. 공동생활에도 함께 하 시게 되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김병우 · 정영옥 집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신협(헌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2 - 2 호

2025년 1월 12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지금 사랑방공동체는 창세기 말씀으로 성서일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위대한 선포로 시작되는 창세기는 이 세상의 시작이 어디서,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물과 불을 심지어 동물이나 나무를 섬기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충격과 반응을 일으켰을지 예상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강력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면 사람을 비롯한 모든 만물은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야 홍수 심판이 납득이 갑니다. 어떻게 그 많은 피조물들을 물로 쓸어버리실 수 있을까 조금은 원망 섞인 물음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한낱 먼지와 같다는, 다른 피조물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 이해가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죄악이 가득했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인 (창6:5) 썩어 있던 세대에 오직 한 사람, 노아만은 달랐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 밖에 없구나’ (창7:1) 라고 말씀해주실 정도로 노아는 흠이 없고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6:9)

노아에게 있어 의로움이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꼭! 그대로 다하는 (창6:22) 그 순종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주를 말씀하신대로 꼭 그렇게 짓고, 더불어 명하신대로 동물들을 꼭 그렇게 방주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노아는 ‘흠 없이 의로운 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노아의 행동에 중점을 둘 때 나오는 호칭입니다.

선교와 섬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노아는 그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노아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는 짧지만 강력하게 이런 점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은 자’ 노아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은, 참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 40일 동안 밤 낮 없이 땅에서는 샘이 터지고 하늘에서는 폭포수와 같은 비가 내릴 때 노아는 이 은혜를 실감했을 것입니다. 모든 생물이 죽어갈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 그리고 방주 안에 살아있는 짐승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지요. 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진정 감격했을 것입니다.

1년이 넘는 힘겨운 방주에서의 생활을 끝내고 밖으로 나온 노아가 처음으로 한 일은 바로 제단을 쌓고 정결한 제물로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한 첫 행동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 하나님께 경배하며 정결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노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그리스도로 인해 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들입니다. 이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입은 자들로써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해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디아코니아사랑방 장영미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 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
<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장영미 전도사

찬송 : 293 410 327 / 440

기도 :

성경 : 창세기 8장

제목 :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1. 방주에서 나온 노아 <1-19>

- 1) 내용: 1년하고 10일 동안 방주에 머물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밖으로 나온다.
- 2) 해석: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지 않다가 '나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방주에서 나왔다.
- 3) 적용: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도록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자. 말씀이 검증되기 전까지는 인내하고 기다리자. 말씀하셨다면 온전히 순종하자.

2. 제사를 드린 노아 <20-22>

- 1) 내용: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후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
- 2) 해석: 은혜를 입은 노아가 처음 한 행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다. 제사를 드릴 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 3) 적용: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자 - 공적인 예배에 빠지지 말자. 정결한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자.

20년후의 사랑방공동체

머리 속에서 미래의 사랑방을 상상해 보았다.
몇 배나 커진 넓이, 늘어난 사람수, 최신의 과학기술 적용 등등... 그것들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2년 후에 사랑방은, 내 생각에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다. 200년 후에 사랑방은, 존재하고 있을지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20년 후의 사랑방을 생각해보게 됐다.

20년 후, 우리 10대 푸른꿈들은 30대가 되고, 가장 큰 나이를 가진 사람은 40에 가깝다. 그 해 나는 34이다. 우리는 학업을 마치거나 가정을 만들었을 것이다. 우리는 사랑방에서 아직도 함께 모이거나, 혹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을지도 모른다.

마치 세대교체처럼, 교회, 그리고 공동체의 사람들이 싹 바뀌고, 지금의 권사님 집사님은 다들 무림 사랑방으로 갔을 것이다. 곰팡이가 많이 난 건물들을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수리하거나 새로 건물을 건축하거나 또 혹은 몇몇 건물이 폐기 됐을지도 모른다.

선생님의 말로는, 20년 전의 사랑방은 교육관도 갖 만들었고, 집사님 권사님들도 다 30대 이셨고, 분위기 자체가 다 달랐다고 들었는데, 제 생각에도 20년 후, 사람들도 다 바뀌고,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달라진 환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얼마나 많이 바뀌든, 전의 사람들도 더 바뀌었어도, 다른 곳으로, 나라로, 심지어 행성으로 이사를 가도, 사랑방은(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랑방의 각 전통(공동체 생활, 강강술래, 방모임, 성서일기 등등)도 바뀌지 않고, 마치 집 같은 소속감, 언제나 "함께"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이겨내는 힘과, 점점 변해가는 사회와 시대의 흐름 속에도 서로와 함께 신앙을 지켜가는 이 관계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또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랑방교회는, 20년 후든, 200년 후든, 2000년이든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믿고 있다.

항상 그런 사랑방이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사랑방.

푸른꿈사랑방 화진심 학생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역대상 16 : 28-29 인도자
9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골로새서 1 : 13-14 인도자
다함께
292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누가복음 3 : 15 - 22 설교자
552 새짜사랑방
“ 새 시대를 여신 예수님 ”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성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김병우 정영옥 / 봉헌위원 : 김화인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공동기도문

저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로서
새로운 안목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아멘.

새 시대를 여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오랫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사는 세례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에서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울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을 보여주는 세례였습니다. 회개의 세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며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신 새로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내면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새로운 삶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이용신 장로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

고마웠습니다~ 꾸러기학교!

언제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렀을까요?

새싹이 돋고 알록달록 예쁜 꽃이 피었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금세 단풍잎이 붉게 물들고, 어느새 눈이 소복이 쌓인 학교를 바라보며 록이가 꾸러기학교에서 보낸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어떻게 이런 좋은 견학지와 여행지를 찾아내시는지 놀랄 정도로 다양한 곳을 다니고, 계절의 변화를 맞이하며 함께 요리를 만들고, 그 요리를 귀한 분들에게 대접하며 나눔의 마음을 배우고, 센싱 더 스토리 시간을 통해 말씀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뛰놀던 날들까지... 꾸러기에서의 시간들은 상상만 해도 웃음소리가 가득한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꾸러기답게 자라며, 모든 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귀한 여정이었습니다.

매일 꾸러기 친구들을 만나도 또 보고 싶어하는 록이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에게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성도의 교제가 떠오릅니다. 집에 와서 선생님들 이야기를 할 때의 록이의 말투와 표정에는 선생님들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함께 아이를 키우며 신앙과 교육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학부모님들과 나눔 시간들도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 시간들은 서로를 이어주는 끈끈한 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엡 2:19)

소리와 록이가 꾸러기학교에 다니는 동안, 부모인 저희도 많이 자랐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기도가 필요한

순간마다 함께 기도하고,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함께 경험하며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시간도 허락하셨습니다.

록이가 꾸러기학교에 다닌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마치 오래 다녔던 아이처럼 자신이 꾸러기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 학교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곳이라는 확신, 그리고 선생님들의 사랑과 헌신이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긴 겨울방학이 지나면 록이가 꾸러기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졸업식 날, 록이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록이의 삶에서 꾸러기학교를 다닌 1년 반이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특별한 사랑을 누렸던 순간들로 기억될 것입니다. 록이도 그 시간을 행복하고 감사하게 여기며 졸업을 아쉬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듯 참으로 소중한 복된 시간을 누렸습니다. 훗날 록이가 이 행복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것을 기대합니다.

아이들에게 참된 신앙인의 모델이 되어주시고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 주신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고, 말씀 안에서 누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늘 사랑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록이는 좋은 밭에서 풍성한 영양분을 받아 모든 면에서 강건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8)

감사합니다.

꾸러기학교 이룩 엄마, 최효영

떨어진 곳들에서 함께 걸어가는

날씨가 급격하게 싸늘해지는 가운데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랑방 공동체학교 교사들은 25회 기독교대안학교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컨퍼런스란, 공통의 주제를 갖고 비교적 긴 시간에 걸쳐 열리는 대규모 회의나 회담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에서 주최하는 이 컨퍼런스는, 전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대안학교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서로 대화하며 배우고, 노고에 대한 위로와 격려도 주고받는 장입니다. 매번 갈 때마다 새로운 경험들로 기대가 되는 시간이고, 긴장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방공동체라 하면 한국에 있는 기독교대안학교 중에서도 역사가 가장 오래된 급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매번 참여할 때마다 사무총장님이 그 사실을 강조해주시니, 아무래도 몸가짐이 조심스러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거기에 이번에는 사랑방공동체 주관하에 성찬식까지 있었습니다. 2백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야 했기에 준비하는 손길들도 평소보다 한층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빵을 떼고 잔을 들면서 원을 만들고, 양 옆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은혜로운 한 때였습니다. 이후에 다른 학교의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가 오면, 그 빵과 포도주 그리고 성찬방식에 대한 질문이 여지없이 던져지곤 했습니다. 거기로부터 이어져오는 대화를 통해, 기독교대안학교들의 선생님들이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이어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큰 학교든 작은 학교든 상관없이, 더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연결되어 견고 있었음에 격려와 자극을 받고,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저도 함께 앞을 향해 걸어가야겠다는 다짐을 간직해봅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어진 전도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장영미 전도사

찬 송 : 90장, 410장

성 경 : 고린도전서 1:26-31

말 씬 :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 인도의 기독교인들 박해 >

인도의 신자들은 수십 개의 교회에서 '비극적인 폭력, 유혈 사태, 파괴'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한 해 127건이었던 것이, 2024년에는 745건(약 6배)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기독교인들을 향한 폭력과 박해가 중단되고 국가 차원에서 보호될 수 있기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 중보자의 역할 >

혼란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국교회와 공동체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 1) 기독교대안학교 컨퍼런스를 위해. 특히 저녁에 있는 성찬식을 위해
- 2) 건강에 이상이 있는 분들을 위해 (김중필 집사님, 김영화 권사님) 기도합니다.

< 생활공동체 소식 >

2025년 시무식 이후에 공동식사를 비롯하여 아침기도회와 수요정오기도회 등 공식 일정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대연컨퍼런스에 각 학교 선생님들이 참석하셔서 무림리에 남아있는 인원들이 적었지만, 컨퍼런스에 참여한 식구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파로 인해 곳곳이 동파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 장영미 전도사 >